60호편집 45호 편집.qxp 11. 05. 18 오후 12:05 페이지 1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치의학전문대학원 신문사
APOLLONIA
제60호 2011년 5월 20일 금요일
창간 2002년 9월 12일 발행인 최재갑 주간 최갑석 편집장 오병철

주요기사
[illegible]
인턴아웃
[illegible]

명의관 1년 8개월, 기숙사생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보도부 [illegible], 수습기자 [illegible] / 편집 오병철

의 · 치전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명의관이 많은 기대를 받으며 운영되기 시작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현재 명의관에는 의 · 치전 학생 421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치전원생은 110명이다. 이에 본지는 기숙사 생활과 관련한 만족도 및 불편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19일(화)부터 이틀 간 명의관에서 생활하는 학생 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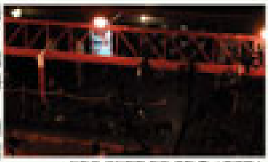
◀ 명의관 전경

명의관 만족도 조사결과

'현재 기숙사 생활에 만족하는가?' 라는 질문에 82%의 학생들은 '대체로 만족한다' 고 답했다. 그러나 특이할 점은 기숙사의 시스템이 갖추어진 후 입사한 1, 2학년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반면, 문고 기숙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명의관으로 이주해 온 3학년의 만족도는 27%로 낮은 편이어서 학년별 편차를 나타냈다.

■ 이중창 설치에도 클럽 쪽 소음은 여전해

방의 시설 면에 대해선 학생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다. 응답자 중 88%가 '만족한다' 고 답했다. 불만이 있다고 답한 이유로는 '클럽 쪽 방의 소음 문제', '화장실 환기 어려움' 과 '방의 제한적인 온도 조절' 이 있었다.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클럽 쪽 소음문제▲

특히 클럽 쪽 방의 소음문제는 명의관이 지어지면서부터 예상되었던 문제였지만 여전히 이곳저곳의 이유로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클럽 쪽 방에 이중창이 설치되었다고는 하나 클럽의 시끄러운 음악소리와 취객들의 고성방가 소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작년까지는 클럽 쪽 방의 기숙사비를 30% 인하하는 혜택이 주어졌으나, 현재는 클럽/비클럽 쪽 방의 기숙사비가 동일해지면서 클럽 쪽 방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조교단에서는 "클럽 쪽 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며, 이른 학기부터 다시 학교와 협상이 시작된다" 며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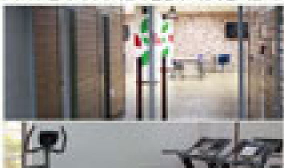
또한 일교차가 큰 요즘 날씨에 난방 가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아침에 너무 춥다" 고 대답한 학생이 많았다. 이 때문에 '방에 전열기구의 사용이 필요한가?' 에 대한 질문에 찬성한 학생 중 '42%의 학생이 전기장판 등 추위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고 답했다. 이에 대해 기숙사 조교단 측은 "'화재의 위험이 있어 방에서의 전열 기구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기숙사 내부규정은 모든 경북대학교 기숙사에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명의관만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며 실질적으로 전열 기구의 사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열기구의 사용이 내부규정상 불가능한 만큼 이러한 학생들의 불편사항은 난방 가동 시간을 늘리거나 난방 시간대를 아침으로 분산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공용 시설은 거주 인원에 비해 매우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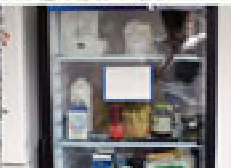
층별 시설과 공용 시설에 대해 '부족하다' 고 대답한 사람이 각각 62%와 38%를 차지해 기숙사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드러냈다. 특히 층별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별 소형 냉장고 사용이 불가능한데 비해 층별로 배치된 냉장고가 수용할 수 있는 양이 매우 적고, 전자레인지를 비롯한 조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각각 45%와 32%였다. 또한 공용 시설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경우 헬스장의 기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학생의 경우 세탁기의 수가 적고, 세탁비가 비싸다는 의견이 48%였다. 이에 대해 BTL 측은 "헬스장 시설의 확충은 진행되고 있으며, 세탁기 추가문제는 세탁기가 시험 기간에는 사용량이 적은 반면 필요할 때 사람들이 몰려 실제 이용량에 비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며 "세탁기 이용 시간을 보고 편히 이용하게 되면 더 많이 늘릴 수 있다" 고 했다.

■ 독서실과 운동 시설 모두 확충이 필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페테리아의 이용 및 시설 변경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탁구장을 축소하고 헬스장을 늘리는 방안' 에 대해서는 49%의 학생들이 '찬성한다' 고 하였고 40%의 학생들이 '현재의 위치가 좋다' 라고 응답하였다. 카페테리아의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54%의 학생들이 '현재처럼 독서실로 이용하자' 라고 답하였고, '휴게실로 전환하자' 라고 대답한 학생이 32%를 차지해 공부 공간과 휴게 및 여가 공간이 모두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본래의 용도대로 식당 또는 매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5%를 차지했다. 현재 '명의관 사생들의 모임' 커뮤니티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카페테리아 공간에 조리 시설과 운동 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복합 휴게 시설로 만들고, 기존의 탁구장과 헬스장을 의전원과 치전원이 각각 따로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로 만든다' 라는 안이 85%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교단은 "학교와 BTL 측에 계속 건의하여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학교와 BTL 간의 대화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어 단 시간 내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했다.



▲ 현재의 카페테리아(상)와 부족한 헬스기구(하)



사용자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냉장고 수용공간▲

기타 기숙사에 대한 건의 사항으로는 '식사를 하기 어렵다' 는 의견이 13%로 가장 많았으며, '기숙사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좀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화장실 환기 장치 설치' 등의 의견이 뒤를 따랐다. 기숙사 내에 보충이 시급한 물품으로는 냉장고 및 조리기구가 가장 많았으며(32%), 청소기, 헬스 기구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조교단은 "카페테리아 안쪽 공간에 싱크대와 전자레인지와 같은 시설을 들여와 공용 취사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바뀔 것이다" 라고 했다. 또한 부족한 물품은 "이번 분기 명의관 예산의 많은 부분이 헬스 시설을 구입하는데 쓰여서 당장은 물품을 보충하기 어렵지만, 하나하나 바꾸어가는 중이니 기다려 달라" 라고 해 명의관이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명의관이 완공된 지 1년 9개월이 지났다. 학생들의 편의와 더 나은 학습 및 주거 환경을 위해 큰 포부를 안고 개관한 기숙사이지만 아직은 시설이 미비해 입주한 학생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소음 문제, 물품 부족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학교와 BTL 측의 피드백은 부족하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또 향후 명의관에 입주할 많은 후배들을 위해 학생과 학교 당국의 더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치의학교육 인증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보도부 김용준 / 편집 김도형

▲치의학교육 인증평가 최우수대학 선정된 본교의 전경

2011년 2월 24일 발표된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김규식)의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에서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이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치의학교육 인증평가는 치의학 기본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치의학 교육기관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성과를 총체적으로 분석, 평가하였다. 이번 평가의 결과를 통해 경북대 치전원이 국내 최고의 치의학 교육기관으로 공인받은 것이다.

인증평가의 절차는 우선 신청대학의 자체평가 보고서(2010.6)를 받은 후, 서면평가(7~8월)와 방문평가(9~10월)를 거쳐 최종 인증판정(다음해 2월)을 하게 된다. 자체평가 보고서의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치전원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학교를 평가하는 것으로,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절차이다. 자체 평가를 통해 대학 스스로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단점과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체적으로 인증평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게 하는 것이다. 경북대학교 치전원의 경우 치의학 교육인증 자체 평가를 권오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위원 : 권대근, 박진우, 서조영, 신홍인, 안용환, 이충우, 조재열, 전병익, 최재갑 교수)를 통해 준비하였다. 인증평가 기준은 기관의 효율성과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 등 5개 항목에 걸쳐 총 5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약 인증평가 기준의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추후 개선점에 대한 서면보고 및 방문평가를 진행한다는 조건 하에 '조건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제가 한 개 있거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유예나 인증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경북대 치전원은 교육과정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결과적으로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된 것이다. 치과대학에서 치전원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바뀐 임상중심의 교육과정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북대학교 치전원의 교육과정은 기존의 과목중심의 교육과정에서 겹치는 내용을 최소화하고 한 가지 질환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여러 과목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엮어 교육효과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임상실습교육의 강화,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특성화된 입시전형제도의 운영, 교수들의 연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BK21과 MRC와 같은 국책연구사업의 유치, 학생기숙사와 복지시설의 확충 (복지동의 학생식당, 4층의 운동시설확충, 4층 남녀 샤워실) 등의 분야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로 경북대학교 치전원은 앞으로 4년간 인증평가가 면제됨은 물론 우수한 교육환경이 대외적으로 공인됨에 따라 더욱 우수한 학생의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학교의 수준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2011년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경북대 치전원과 전남대 치전원의 뒤를 이어 2012년에는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등 4개 대학이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최우수평가 인증서 전달식 (상, 하)▲

2011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등원식

병원의 새내기, 두근두근 원내생

보도부 권기은 / 편집 김도형

▲ 원내생 대표의 선서

▲ 과별 원내생 커리큘럼 소개

2011학년도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등원식이 지난 2월 28일에 본교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등원식이란 3학년이 원내생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은 물론, 병원 생활 전반에 관한 안내와 과별 원내생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행사이다. 이는 원내생의 임상 실습을 위하여 병원이 학교로부터 학생들을 인도받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날 등원식은 송근배 치의학대학원장의 격려사와 김성교 당시 치과진료처장의 환영사, 가운과 명찰 수여, 원내생 대표의 선서, 치과의사 윤리강령 낭독의 1부 순서와 서조영 학생처장의 병원 생활 안내, 과별 원내생 커리큘럼 소개의 2부 순서로 진행 되었다. 3학년 대표인 이동원 학우에게는 송근배 치의학대학원장이 직접 가운을 입혀주고, 김성교 교수가 손수 명찰을 달아주며 원내생이 된 것을 축하해주었다.

과거에는 1부 순서만을 등원식에서 진행하고 2부 순서는 과별 일정에 따라 약 1주일에 걸쳐 진행되었던 반면, 이번 등원식에서는 1, 2부가 동시에 진행되어 학생들이 병원 생활에 대해 한 번에 들을 수 있어 원내생 생활에 대한 이해가 쉬웠다는 평이다.

사 령

아래 사람을 2011년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신문사 기자로 임명합니다.

편집부 김도형

수습기자 어지은A 이승엽
김은경C 장정안
노주송 최윤정
송주현 한세영
심재용

Apollonia

제27회 전치제! 그 현장을 가다~

수습기자 이지은, 노주승 / 편집 조신형

제 27회 전치제가 5일 6일부터 이틀간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주관 아래 경남 양산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11개 대학에서 모인 치대생, 치전원생들이 각을 세워 경기와 경연대회에 참여하며 자웅을 겨루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경쟁운동회와 공연 등을 통해 서로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전치제 전 이곳 양산을 가는 단체 경기에 우리 학교는 대구에 이르, 축구에 배드민턴, 농구에 디펜에가 출전을 하였다. 하지는 특무기 같아지는 최악의 기상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서울대와 거친 8강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으며, 디펜에 역시 강릉원주대와 부산대에 패해 예선 탈락을 하였다. 축구의 배드민턴은 강릉원주대와 무승부, 부산대에는 4:0으로 이겨 1승 1무를 기록하여 강릉원주대와 승점, 골득실은 동일하였으나 경고가 1개 적은 강릉원주대가 본선에 진출하고, 배드민턴이 탈락하는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

전치제 첫날에는 마-스 예선, 락구, 발점, 스타크래프트, 피파(FFA), 럭스 카빙 대회, 댄비를 포함 대회가 열리었다. 늘씬은 승승장구를 거듭하며 결승에 진출, 이튿날 결승에서는 3학년 박성훈의 승리를 바탕으로 한국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락구 개인전 남자부에는 1학년 이호희가 출전, 결승에서 아쉽게 패하여 준우승을 하였으며 여자 개인전에서는 1학년 이소희가 출전, 4강에서 아쉽게 탈락하였다. 락구 복식에는 2학년 정홍재, 1학년 전재욱이 출전하여 4강에 진출하였으나 아쉽게 결승 진출에는 실패하였다. 발점 종목에는 1학년 김준수, 조인호, 이지영, 최윤형이 출전하였으나, 발점 동아리가 있는 타 대학에 밀려 아쉬 탈락하였다. 그리고 단체줄넘기, 100m달리기, 씨구, 신발 넣기 단지기 게임, 오리발 신고 400계주 종목으로 구성된 경장 운동회에는 1학년 16명이 참가하였다. 여자 100m에는 김은경(DC)가 1등, 단체 줄넘기 종목에서도 1등을 하였으나 마지막 400m계주에서 3등을 하여 총점에서 아쉬 작년에 이은 경장 운동회 2연패에 실패하였다. E-sports 종목인 FFA에는 1학년 김진철, 이강호가 출전, 1차전에서 탈락하였으며, 스타크래프트에는 1학년 정경민, 심재영이 출전, 4강에서 1-2로 아쉽게 패하였다. 럭스 카빙 대회에는 2학년 이성환, 김이준이 진출하여 2학년 이성환이 전국 2등을 하였으며 단비를 조도 대회에는 2학년 이소정, 이지은A가 참가하였으나 아쉽게 입상은 하지 못했다.

또한 구강보건교육 워크샵에서는 각 학교별 예방교실이 시행하고 있는 지역구강보건교육 현황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자세에 진행된 에필름 이벤에는 우리학교의 아하림과 동아리인 치카펭수를 비롯하여 각 학교별 댄스, 기타 동아리 등이 참여하여 청소 깊고 넓은 기량을 뽐냈으며, 가수 시스타의 케이일이 초청되어 전치제 밤의 열기를 더해였다.

▲경기1 참가1학년 주승우

▲스타크라프트 1학년 출전 대진표

▲조은경 참가1학년 DC소속

▲전치교장 럭스2인1조 우승팀(치과의사)

지금 우리 도서관은?

문화부 장지원, 수습기자 유은정 / 편집 조신형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치전원) 4층에 위치하는 도서관이 봄과 몇 달 전단에도 복잡하기에 차례있었다. 2005년 9월 치전원 출범과 함께 신축된 건물에 개관해 약6년간 우리대학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지식의 터전이 되어온 도서관이 가장 큰 문제는 지초한 대출실적과 이용하는 학생 수의 감소였다.

현재 도서관은 고실 하나 정도의 규모(69평)로 치의학 분야의 전공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등 7200권 정도의 죽성책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다. 이는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소속된 3개의 분관(의학 분관, 치의학 분관, 법학 분관)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서, 약 8천권을 소장한 법학 분관보다 적은 수 치, 약 7만 6천권의 의학 및 관련분야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의학 본관에 비하면 장서의 수가 하루나갈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서적의 수가 적다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물론 치의학과 관련된 책들은 치의학 본관에 구비되어 있지만, 일부 기초의학 관련 책들이 의학 분야에만 구비되어 있어 바른 화음에도 책을 빌리려 의학 분관까지 가야하는 수고를 감수해야만 했다. 인체의 신비를 다루는 기초의학을 배우는 것은 같은데 우리 치전원에 그와 관련된 책이 부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 소설을 비롯한 대량한 분야의 책을 대여하려면 본교 도서관까지 가야만 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읽고 싶은 도서를 신청해도 치의학 분관에서는 이를 할애할 수 없었던 사실. 우리들 힘힘 학생이 없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도서관이 작년 10월부터 시작해 몰래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권간 대출 통수가 2009년 2622권, 2010년 2654권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4월 25일을 기준으로 1046권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러한 대출 통수의 증가는 도서관의 변화와 관련 있다. 작년 10월부터 김영진 교수님께서 분관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많은 규정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업무자이신 조희정 선생님께서는, 몰래 들어 지전원측의 지원으로 바닥 카펫, 목서가가 새로 설치되었고, 보호이 공무할 수 있는 전자이 책상도 있어 도서관 환경이 개선되었다. 또한 현재 학생들이 원하는 책을 신청하면 분야에 관계없이 신청하는 모든 책을 치의학분관에도 구비할 수 있으며, 특히 치의학관련 서적은 최신판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거나 출판사에 스캔이 된 상태이다. 올 5월부터는 치의학자생연을 단독으로 다루는 전문적인 WEB DB도 갖추기 때문에 학생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하겠다.(갖춘 후, http://kubs.knu.ac.kr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

아직 다른 본관에서해 소규모 공간, 부족한 장서, 지초한 이용률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단기간에 많은 발전을 보였고, 그에 따른 성장률도 보이는 것이 우리 경북대학교 치의학 본관의 첨주소이다.

현재 새로 리모델 한 경북대학교 도서관▲

60호편집 45호 편집.qxp 11.05.18 오후 12:05 페이지 4

[인터뷰] 새로오신 교수님을 만나다

편집장 오원철, 수습기자 김윤선C / 편집 오원철

2011년 새학기의 시작과 더불어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두분의 교수님이 새롭게 부임하셨다. 3, 4학년이라면 종합치과실습시간에 뵈어 친숙한 치과보철과의 조진현 교수님과, 젊은 활기의 치과보존과 하성홍교수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진료, 강의, 연구로 인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신 두 교수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치과보철과
조진현 교수

1. 본인의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71년생으로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치과대학을 93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와이프를 본과 3학년 때 만나 졸업 후 결혼해서 지금은 딸 둘과 아들 하나 이렇게 다섯 식구랍니다.

2. 학교에 부임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와 일 연합치과'라는 곳에서 부부가 함께 6년 정도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외래교수로 지속적으로 치과보철과 관련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3. 혹시 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예전부터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때마침 기회가 찾아왔고 이렇게 학교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고 힘들겠지만 그만큼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게 될 과목은 2학기에 국소의치실습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4. 학창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기 보다는 주로 학과 때 친구들과 함께 우루루 몰려 다닌 일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또 본과 3학년 때 지금의 와이프인 여자친구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죠.

5.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공부할 때 교과서를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한 뒤에 문제를 푸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본과부터는 암기위주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힘들었죠. 반면에 와이프는 암기력이 뛰어나서 한번만 봐도 술술 외울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것이 부러웠던 것 같아 이런 점도 힘들 때가 있었죠.

6.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치과 진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과라고 생각해서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7.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과의 자랑을 해주신다면?

보철과는 치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자 크라운, 브릿지부터 국소의치, 총의치에서 교합에 이르기까지 여러 내용을 포함하는 넓은 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inlay부터 전악보철까지 치아가 기능할 수 있도록 처치하는 마지막 단계를 담당하므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련기간도 예전에 비해 1년 늘어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8. 치전원 학생들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요?

종합치과 실습을 하신지 해오면서 치과대학 학생들과 치전원생들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다들 똑똑하고 학교생활도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력이 좋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죠.

9.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자신의 나이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수련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졸업 후에는 수련과정도 꼭 거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0. 취미가 있으신가요? 진료나 강의 이외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예전에는 시간이 나면 낚시를 좀 했었는데, 요즘은 진료시간이 끝나면 앞으로 할 강의에 대한 공부, 연구에 힘써 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과보존과
하성홍 교수

1. 본인의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34세로 대구의 심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7학번으로 치과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아내는 동아리에서 만나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고, 얼마 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 학교에 부임하시기 전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졸업 후에는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하였고, 군의관으로 3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는 개인병원에서 1년 반 정도 진료를 하다가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3. 학교에 오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졸업 후 수련을 하면서도 공부가 계속 하고 싶어 교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교수라는 자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는 3학년 근관치료학 실습을 진행하고, 2012년부터는 '치아 질환' 수업에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4. 학창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학창시절에 하면 역시 시험을 친 것과 동기들과 함께 놀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죠. 특히 축제에 동참하고 있었는데, 선후배들과 즐겁게 동아리 활동하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5.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사실 공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는 편이었는데, ST(student's case)에서 ST 1가 가장 힘들었죠. 케이스가 자꾸 넘어가서 마감까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겨울에 치주과 keep을 서면서 방학을 활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6.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학기 중에 임상실습을 돌면서 어느 과를 정해야 할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보존과를 돌면서 느꼈던 조용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많이 마음에 들어 시작하자마자 보존과를 지원했습니다. 보존과에 수련을 시작하면서 역시나 저랑 잘 맞아서 좋았습니다.

7.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과의 자랑을 해주신다면?

보존과에 찾아오는 환자는 대체로 통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인상을 쓰며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관 치료나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을 해결해 주면 환자가 웃으면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환자의 고통을 직접 해결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8. 치전원 학생들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요?

레지던트 3년차일 때 잠깐 치전원생을 보았는데 그때 든 생각은 나이가 좀 많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현재는 특별히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 다 같은 학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9.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학생이라서 즐겨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좀 더 즐겨 보도록 노력하면서 학교생활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학년이 하고 있는 근관치료실습도 ST 때 결국 해야 되고 열심히 해두지 않으면 그때 고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10. 취미가 있으신가요? 진료나 강의 이외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예전부터 운동을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시간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진료와 강의 외에도 세미나, 공부, 연구 같은 일들이 많아서 바쁘답니다. 또 아들이 많이 어리기 때문에 아들을 돌보는 데에도 시간을 쏟고 있죠.

60호편집 45호 편집app 11. 05. 18 오후 12:05 페이지 5

경주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의 모꼬지

보도부 봄이든, 수습기자 송주현 / 곤잘 소식통

입학하자마자 묻어지는 동아리 행사와 모임들, 그리고 2주에다 찾아오는 시험에 적응하느라 바빠 봄나들이도 못 가는 새내기 생활이 참 큰 일이 지는다. 그리고 맞이한 4월의 첫 날, 기다리던 모꼬지를 가게 되었다. 확연히 마주해온 햇살과 봄바람이 마음을 들뜨게 했고, 무엇보다 쉽게 만나 볼 수 없었던 선배님들, 고수님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설레어 아침 일찍부터 눈이 떠졌다. 이제는 갑이 가까워진 동기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것도 신나지만, 학교에서 흔쳐볼 만나기 힘든 선배들과 함께 조를 짜서 1박 2일을 함께 한다니 꺼진 신나는 일이 아니었다. 어떤 선배들과 함께 하게 될까? 하는 기대감을 숨길 길주길 전부터 안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모꼬지 날 만난 우리 조 선배들은 다들 새롭고 따뜻한 분들이셨다.

선배들이 사주신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버스여행을 하고 경주에 도착하자, 바로 조별 대한 미션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미션 경주국립박물관 내에 전시된 전시품을 찾아 사진 찍어 오기.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과 함께 사진을 찍어 오면 점당 보너스 점수를 더 준다는 것. 우리 조를 꼭 1등으로 만들겠다는 일념 하에 같은 조 동기들과 함께 일교에 흩어져 찾아 다녔다. 선배들과 힘을 모아 지정된 전시품도 쉽게 찾아보고 만다불에서 다른 조와 다정했던 퀘즈게임에서도 우리 조가 퀘즈 점은 점수를 따냈다. 게다가 외국인과 함께 찍은 15장의 사진까지 합하니 우리 조는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기고 했었다.

점심때, 안압지를 돌며 보모로에 도착해서는 무려에 미션을 배정받았다. 소나무에 따라잡기 포즈로 사진을 찍고, 이준주, 이천단 고수님과 다리집 게임을 하는 것. 이 미션을 마지막으로 점수를 종합산하, 1등을 한 조가 꿀벅 조에 모대를 배워주기로 했다. 다리집 게임에서 순위가 뒤로 밀려 조금 아쉬웠지만, 미션을 마친 후 우리 조원들 그리고 고수님들과 옹로를 마시며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이천단, 이준주 고수님께서 비보살했대도 일찍부터 함께하시고 또 직접 게임에도 참가하셔서 우리 모든 학생들과 어울려는 주습이 주었보다 인상적이었다. 학부 때는 볼 수 없었던 참신한 모습이라 역시 만드관계가 끈끈한 경북대에 들어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시간에 앞서 경주 교육문화회관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난 시간을 가졌다. 다음 학고에서 빡빡한 일정을 보내다 오면면에 뭐라도나 놀다 보니 레인 피곤한 게 아니었다. 선배들은 이 시간에 중요적 정을 주 두어야 저녁 시간을 더 즐거이게 보낼 수 있다며 낮잠 잘 것을 강추하셨다.

▲다리사진 찍고와 손들었음 한 다리씩 있다 포즈 취하기▲

▲ 처도보 안했던 고수은 다리도해당 다리다리일은 다행히 이름주 고수▲

오꼬지의 하이라이트 레크레이션 시간. 특히나 신선했던 게임들이 기억에 깊이 남는다. 목소리 큰 사람들의 무대로 돌아와서 선후배도 없이 "야!" 하고 소리치던 게임, 커플이 나와서 대리에 껌 풍선을 빨로 차 제미주는 게임, 그리고 주었보다 우리 1학년 동기들의 장기자랑의 경주에서의 경북인의 일정 대목 므겁게 만들었다. 체육교육, 의생공이하, 그리고 세무나 정경 일학 스타로 전한 우리

▲사이즌 고수의 색소폰 연주 ▲고수님을 위로하고 함박웃음!

▲게임을 간 종안 다리집기 게임! ▲포즈하고 있을 인공적 그대로이라면

스타 KBJ. 재치 넘치는 사회자의 진행을 따라 동기, 선배, 고수님들과 크게 웃고 떠수도 치고 하다 보니 어느새 가족처럼 정이든 기분이 들었다. 역시나 많은 고수님들이 참석해주셔서 그 자리가 더욱 신이 났다. 더욱이 남순천 고수님의 색소폰 연주와 최재갑 고수님의 '백조의 호수' 춤에서 우리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모꼬지를 즐겁게 보내기를 바라시는 고수님들의 학생향신을 엿볼 수 있었다.

신나는 밤을 마감하려서 조별로 한 방에 모여 고수님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고 노래도 함께 부르다 졸린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갔다. 우리 조에는 남순천 고수님과 이준주 고수님이 올아오셨고 노래의 기계를 직접 빌려 읍지해 다른 어느 조보다도 신나게 술자리를 즐겼다. 고수님들,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들과 즐겁게 술을 한잔 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 되어 있었고 즐거운 시간이 너무 금세 끝나버렸다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다구로 돌아와야 했다.

경북대 지진원이 입학하서 얻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짧으로 많은 행사가 있었다. 행사를 하나 둘 거치면서 선배들을 만나고 또 동기들과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우린 자리가 첫 같았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를 꼽으라면 단연 모꼬지가 아닐 까. 학고에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학고가 어색한 우리 입학선동에게, 선배, 고수님들과 각이 없이 어울린 시간은 경북대학교 학생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게 해주었다. 학고를 향한 우리 마음을 갖게 해준 모꼬지를 배풀리게 나 역시 모꼬지에서 만난 고수님들, 그리고 선배들처럼 열정적이고 따뜻한 기슴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본다.

단체 사진▲

60호편집-45호 편집.qxp 11.05.18 오후 12:05 페이지 6

의료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illegible]

2011년 4월 5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치과의료전달체계, 원하신고제도 및 자율징계요구권 등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특히,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조항은 오랫동안 치과계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사항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여러 단체들은 이번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환영하며 본 법안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4월 5일 의료법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전문의제도 논란 잠재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2001년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2007년부터 실행되었다. 지난 1963년부터 전문의시험제도를 통해 실시되려고 하였으나, 치과계 내부적인 문제와 회원 간 갈등 등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98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치협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①의료전달체계의 확립, ②전문의 소수 정예화, ③치과전문과목 1차 의료기관 표시금지를 전제하여 실시되었다. 시행 당시 2003년 이전에 수련을 시작하거나 마친 치과의사와 더불어 기존의 치과의사들은 모두 전문의 취득을 포기한 채 제도시행을 받아들였으나, 협회와 정부간, 전문과목 분과학회, 수련치과병원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매년 배출되는 전문의 수는 매년 200명 이상 4년간 1025명이 배출되었고, 각 학회 간, 회원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전문의 제도의 시행으로 일차의료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 AGD제도 실시 행사 ▲▲
치과의사전공의 통합선발 공청회 현장 ▲

이에 따라 치과전문의 취득 기득권을 포기했던 치과의사들과 기존의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불만감과 불안이 증폭되고 치과계는 점점 분열로 치닫는 양상까지 나타내었다. 치협은 '전문의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을 향상 시키자'는 취지로 AGD(통합치과전문임상의)제도를 시행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전문의' 용어 사용을 문제 삼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중단된 가운데 있다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다.

■ 치과의사전문의는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전문의제도가 시행되기 전 개원의들 중심으로 '배부 및 과대 의료광고, 환자 끌어들이기 개원의간 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전문의제도 실행을 반대하였다. 정부와 치협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1차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 과목 표시제한을 두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매년 전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의료 광고 매체 기준이 완화되는 상황 속에서 전문 과목 표시제한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해 앞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을 개원할 경우,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 전문의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의의 경우 다양한 환자층을 진료함으로서 전문의와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개원의와 전문의가 서로 협력하고 1차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소제목 : 선진국 형 의료전달체계 모형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세계치과 연맹에서 권장하는 선진국 형 의료전달체계 확립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개정안처럼 치과 전문의로 진료하는 경우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하고, 영국의 경우 치과 전문의는 일반치과의사나 다른 전문의가 의뢰한 환자만 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스웨덴,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등도 치과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다른 치과의사가 의뢰한 의뢰서가 필요하며, 호주의 경우 의뢰서 등이 필요 없이 일반의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의뢰서 없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개원가에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국제규격에 맞는 전문의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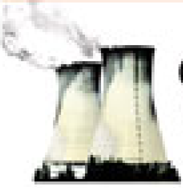
■ 소제목 : '기득권층을 위한 개정', 환자를 위한 조치는 아니다?

전공의협회는 개정 법률안을 두고 '치과전문의의 실효성을 없애는 법' 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4년의 충분한 수련기간을 거쳐 전문의 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에게 그 과목의 진료만을 제한하는 것은 치과의사로서 행할 수 있는 진료영역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것. 또한 의료, 한의계와 달리 치과에서만 진료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계 진료영역의 형평성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게다가 1차 진료의 포괄은 환자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며, 현재 개정안은 기득권층을 위한 조치일 뿐 환자를 위한 것은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치협에서는 전문과목 진료제한은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약속된 사항으로 법률 시행에 있어서 이루어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의료법 개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

일부에서는 특정 진료를 학술적으로 분류하여 특정 과목에 제한하는 것은 현재 교육과정상 그리고 진료의 특성상 여러 전문과목에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각 학회간 다툼양상을 심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처럼 특정 과목으로 환자를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뿐만 아니라, 편법 등을 통해 개정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전문의진료는 의료수가 상승으로 환자에게 진료비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어 제도 실행 전에 의료수가도 적절히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60호편집 45호 편집.qxp 11. 05. 18 오후 12:06 페이지 7



일본원전 사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회부 [illegible] / 편집 [illegible]

방사능이 미치는 환경적 영향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에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은 아직까지 집계되지 못한 엄청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옴과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국제적인 피해를 야기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진행상황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진 쓰나미로 인한 정전
2. 해당 원자로에 냉각수 공급차질
3. 냉각수의 공급 차질로 인한 연료봉 노출
4. 연료봉 노출로 인한 노심온도 상승
5. 연료봉 산화로 인한 수소가스 발생 & 폭발
6. 건물 파괴(격납용기 손상 추정)로 인한 대기 중 방사선 물질노출
7. 원자로 냉각을 위한 살수 및 바닷물 주입 → 식수 및 해양오염 발생
8. 원전 사고에 의한 국제 기준 중 최고단계인 7등급 판정
9. 4월 중순부터 격납용기를 물과 질소로 채워 폭발을 막고, 연료봉을 냉온정지 상태로 만드는 수관냉각 시행
10. 5월 6일 현재, 원전 1호기 건물 내부에 작업반 첫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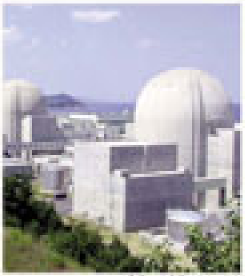
후쿠시마 원전 사고등급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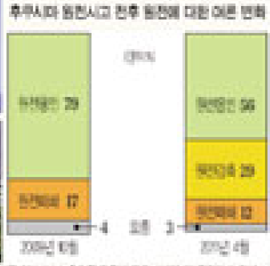
사고 후 후쿠시마 원전의 위성사진(좌), 원전에 대한 필사적인 냉각수 분사(우) ▲

사고 발생 이후 헬기와 지상에서 냉각수 공급을 통해 원자로가 과열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 최악의 시나리오인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내리는 노심용융이 일어나지 않았고, 다량의 방사능 물질의 직접적인 노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편서풍에 의해 원전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사고 이후 국내에 내린 비에도 소량의 방사선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일본 현지에선 무엇보다도 안전한 생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며, 국내에서도 해양의 방사능오염으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고의 개략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자연으로 날아가 옅어지지만 사고의 흔적은 점점 더 생생해진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방사성 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정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며 기준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체르노빌 사건 이후 국내 갑상선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추측도 신빙성 있게 들리고 있다. 일본에서 요오드, 세슘 뿐 아니라 체내(축적 배출) 흡수가 쉽고 반감기가 긴 스트론튬도 검출되었다고 보도된 만큼 피해 가능성은 단지 현재 뿐 아니라 향후 2,30년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그 위험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을지 아닐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문제지만 결코 낙관적이거나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원전 사고에 대한 피해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원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이번 사태의 수습과정에서 일본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아닌 엄격한 정보통제로 일관하여 초기 대처가 늦어졌으며, 미국의 원전전문가가 투입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외부에서 제대로 된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러한 원인에 당시 책무정을 위해 우라늄 재처리 명으로 원전 내 수조에 보관해 있던 대량의 폐연료봉 때문이라는 설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한국의 원자력 전문가의 입국을 거부한 원인 또한 재처리 사실의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고 한다[2]. 물론 이런 의혹에 대해 일본 원자력 안전기구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3]했지만 사실 관계의 유무보다 일본의 사고대처 방식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국내에서도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속한 상황대처 보다는 국민들을 우선 안정시키는데 급급했다.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원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이 감지된다. 응답자의 40% 이상이 사고 이후 원전을 폐쇄하거나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이는 사고 전 2009년의 부정적 의견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4]. 한편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1호기 원전처럼 사용년수가 30년 이상 된 노후원전이 국내에도 존재하고, 게다가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지난 4월 12일 전력선 차단기 고장으로 원자로가 정지되어 정밀점검에 들어간 상태이다. 5월 6일 현재, 고리 1호기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결과 '이상없음'으로 판정되어 재가동을 예정하며 원전 안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원전 안전 보완에 다편에 착수한다고 한다. 하지만 예정된 한 달여의 검사기간보다 대폭 축소되어 12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방식 또한 전문가 육안확인과 시운전을 통한 방식이 아닌 서류검토 및 작업일지만을 통한 졸속검사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5].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보여주듯 노후화 된 원전에 아무리 대대적인 보완책을 통해 안정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예상을 뛰어넘는 천재지변에는 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노후 원전의 폐쇄와 더 안전한 방식의 원전건설이나 대체에너지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상용화된 어떠한 에너지원 보다 효율이 높은 원자력 발전방식을 두고 즉각적인 원전폐쇄나 감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따른 해결책으로서의 원전건설의 증가추세는 제동이 걸릴 것이 확실시되며, 그 위험성을 해결하려는 국제적인 협력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

1) 1979년 3월 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사고는 [illegible]
2) "일본, 플루토늄 [illegible] 한국 기술자 입국 거부했나" (프레시안, 2011/4/7)
3) "원자력안전기구, 후쿠시마 원전 폐연료봉 보관설 근거 부인" ([illegible], 2011/4/22)
4) "[illegible]" ([illegible], 2011/4/10)
5) "고리원전,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승인… 12일 점검 만에 안전" ([illegible], 2011/5/[illegible])

60호편집 45호 편집.qxp 11. 05. 18 오후 12:06 페이지 8

애플 vs 삼성

- 지적재산권 소송의 결말은…

[illegible]

애플이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지적재산권 침해로 소송한 가운데 그 내용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티브 다울링 애플 대변인은 "삼성의 최근 내놓은 제품들이 닮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포장 방법까지 애플 제품을 노골적으로 베꼈다"면서 "이런 회사들의 도둑질로부터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소장에서 직사각형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를 채용한 점, 테두리를 은색 띠로 감싼 것, 아이콘의 윤곽을 평평하지 않고 볼록하게 만든 것, 모서리가 둥근 아이콘을 한 줄에 4개씩 배열한 점 등을 삼성이 베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이 애플 제품을 베껴서 얻은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과광고 등도 요구했다.

애플이 삼성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아이패드2 발표회장에서 스티브 잡스 최고경영자는 삼성 갤럭시탭을 겨냥해 "카피캣(copycat)"이라고 비난했다. 작년에 갤럭시탭이 첫 출시될 때도 "시장에 나오자마자 사망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삼성의 반격? 맞소송을 하다

삼성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 건에 관한 사내 공지를 인트라넷에 띄웠다. 삼성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쯤 삼성그룹 사내 게시판 미디어삼성에는 '애플 특허 소송에 관련해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삼성은 공지문에서 애플과 특허 소송전(訴訟戰)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업 내에 미국에도 제소할 계획이며, 필요시 타 국가로도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선사업부는 지금까지 20년 이상 휴대폰 사업을 하며 통신기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축적해 왔고, 핵심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등록한 특허는 전사적으로 3만 5000여 개, 연간 등록 건수 기준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경쟁자인 동시에 부품을 대량 구매하는 매우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에 특허를 다수 침해하고 있어도 대응을 자제해 왔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기존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삼성전자는 공지문을 통해 밝혔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일방적으로 무리한 주장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해 왔다"며 "삼성전자를 '카피캣' 업체로 매도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애플은 왜 삼성을?

애플의 아이패드는 아직도 철통한 위치에 있지만 아이폰은 그렇지 않다. 점유율은 유지하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커지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의 상승세 우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의 급성장은 대단한 기세다. 미래 전망에서는 결국 안드로이드폰이 주류가 되고 아이폰은 팬이 있는 20-30퍼센트의 점유율만을 차지하게 될 거란 예측이 많다.

애플이 노리고 있는 상대는 구글이다. 그러나 애플이든 구글이든 미국 회사다. 또한 얼마 전까지 구글은 애플의 핵심 파트너였고 구글 CEO에게 사외이사 자리까지 준 적이 있다. 구글과의 법정다툼은 승소도 힘들뿐더러 애플의 이미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애플은 구글을 제외하고 구글의 들러리가 되어 단말기를 제조해주는 제조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삼성만이 소송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 이미 대만의 HTC를 특허권 침해로 고소했고 모토로라와도 소송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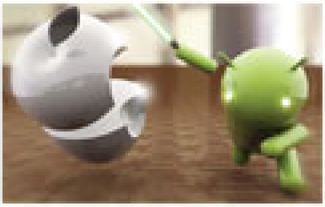
미국의 특허권 소송은 몇 년이 걸린다. 또한 상대의 맞고소와 함께 3심까지 가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직접 어떤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애플은 삼성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진영에게 애플의 제품을 베낀 "카피캣"이란 이미지를 어떻게든 씌워서 견제할 생각이다. 그와 함께 새로 뛰어들 중소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이번 고소사태를 보고 위축되어 주길 바라는 애플의 계산이 담겨있다.

최종 승자는 누구?

삼성전자는 애플의 소송에 대해 "어느 정도 예견된 일로 맞소송을 할 것이며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으니 자신 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송은 하더라도 양사의 비즈니스(애플에 부품공급 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소송에도 이처럼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은 바로 양사간 '교차라이선스(특허 공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휴대폰 관련한 통신 표준 특허를 갖고 있으며, 애플 역시 이를 피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귀띔했다. 즉 각 제조사가 암묵적으로 서로의 특허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법적 분쟁으로 확대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플이 공식적으로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삼성 역시 맞소송을 걸었다. 현재 스마트폰 특허 분쟁에서는 애플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아이폰으로 시장을 선점했고 다양한 콘셉트 특허까지 포함하면 1천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특허 등록 건수로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 시 교차라이선스를 십분 활용할 수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특허분쟁이라기 보다 자사 제품의 부품의 상당수를 삼성전자에서 공급 받고 있는 애플이 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다가오는 여름을 위한 운동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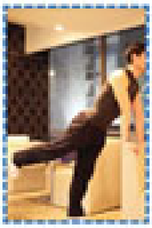
보도부 [illegible] / [illegible]

바쁜 학교 생활로 인해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우리들. 특히나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 다가오는 여름에는 날씬한 사람이 [illegible] 몸매에 대한 고민이 [illegible] 수영장을 가던, 해변을 가던 민망한 옆구리살은 어쩌할 도리가 없다. ([illegible]) 이번에 [illegible]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illegible] 운동을 해야 할까?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을 소홀히 하는 우리들에게 맞는 운동법을 소개하고자 학교 주변 피트니스의 트레이너에게 조언을 구해 보았다.

Mr. Billie [illegible] GX instructor at [illegible]

1. 학교 쉬는 시간에 틈틈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을 배워보고 싶어요.

1) 허벅지 앞쪽 운동: 의자에 앉은 채로 다리를 곧게 펴서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양 쪽 다리를 번갈아 반복합니다.



2) 힙업 운동 : 의자를 잡고 앞에 몸을 의지하고 다리를 곧게 펴서 뒤로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이때 엉덩이에 집중해서 힘을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반복합니다.

3) 삼두 운동 : 팔에 몸을 의지한 채로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4) 복부 운동 : 뒤에 팔을 주고 다리를 접어서 몸 쪽으로 당겼다 펼치를 반복합니다.

5) 종아리 운동 :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다리는 접어주고 반대쪽 다리는 곧게 펴서 종아리 뒤쪽 텐션을 느낍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정도의 운동만으로는 TV에서 볼 수 있는 초콜릿 복근, 가족복근을 만들 수는 없는 법.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 남성, 여성의 경우 하루 1시간정도의 시간을 내어 fitness club에 가서 운동을 해주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2. GX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Fitness club에서 제공하는 여러 GX 프로그램 (Group Exercise, 이하 GX)들을 통한 운동을 추천해 주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instructor가 하는 동작을 천천히 따라하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참여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스피닝이 있으며 outdoor 싸이클을 indoor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하체근력을 이용한 유산소 운동으로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기자 본인도 [illegible] 스피닝 수업을 50분 참여했는데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강한 운동이었지만 음악에 맞추어 단체로 하다보니 힘든 것도 잊어가며 참여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기자에, 태권도 등 격투기 운동들을 다양하게 가미한 종합 격투 body combat 프로그램, bar와 plate를 이용한 전신근력운동인 body pump 프로그램, 요가, 필라테스 등을 가미하여 유연성을 기르고 근력을 기르는 body balance 등의 수업들도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 GX 프로그램의 단점은 각 개인의 level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고 평균적 일반 운동이기 때문에 특정 목표를 가진 사람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기자 본인처럼 3개월 이내에서 [illegible]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GX만 참여하기보다는 개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personal training 프로그램, 이하 PT)을 참여하는 것도 좋다며 소개해 주었다.

Mr. Win [illegible] Personal trainer at [illegible]

3. PT 시스템은 무얼 말하는 것인가요?

PT는 담당 트레이너가 개인의 몸 상태와 목표에 맞춘 일대일 프로그램을 구성해주며 운동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웨이트, GX, 유산소 운동을 골고루 균형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준다. 운동을 할 때 큰 근육을 쓰면서 작은 근육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이 칼로리 소모 근력운동이라 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덤벨운동이나 기구 운동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한다. 특히 우리처럼 운동 시간을 내기가 힘든 이들에게 더욱 좋을 수 있었다.

[illegible] 이들 모두 [illegible] 동안의 소속 지점에서 이는 바라도 꾸준히 운동을 해온 사람이라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다. 우리도 꾸준히 운동을 해준다면 건강한 체력과 탄력적인 몸매, 그리고 앞으로 동안에 회오까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자 본인은 현재 한 달째 fitness club에 다니면서 여러 GX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있으며 부쩍 좋아진 체력과 가벼워진 몸을 느끼고 있다. 사실 앞서 소개한 GX 프로그램과 PT는 우리에게 운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이다. 앞으로 졸업 후에는 더욱더 시간이 없을 것이고 지금 다시 없는 학창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가꿀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정말 늦은 것이다.' [illegible] 지금이라도 시작해야하는 [illegible] 운동으로 몸을 만든다는 것에는 게을리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 학교 동쪽에는 시간만은, 운동이 되는 [illegible]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자를 앞고 운동하러 나가보자!

※ 참고 : 기숙사 근처 헬스클럽 두 곳(올디프, GnH)에서 경대 지이인을 위한 프로모션이 진행중이고, 현재 많은 학우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피로가 싹~ 시원한 매력의 이색 카페

[illegible]

[illegible]

01 CAFE 오랫동안 사랑 받는 녹차 빙수 「cafe LUCID」

[illegible]

INFORMATION

문의 : 053-422-7020
위치 : 삼덕성당 지나 세림도서관 맞은편 좌회 골목 내
시간 : 평일, 일요일 오후 12시 ~ 오후 11시
토요일 오후 12시 ~ 오전 12시

[illegible]

02 CAFE 아이스크림 와플과 함께 즐기는 싱그러움 「BALKO」

[illegible]

INFORMATION

문의 : 053-425-1009
위치 : 약령 골목 내 신협 맞은편 골목
시간 : 평일 오후 1시 ~ 오후 11시
주말 오후 12시 ~ 오전 12시

[illegible]

03 CAFE

쌀밥을 즐기는 그와 그녀의 선택, 아이스 한방차

「오가다」

"다섯 가지 다른따로 우려 한방차"라는 말을 기준"오가다"는 한방차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전통차의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퓨전적으로 재해석하여 사람들에게 한방의 헬스케어와 문화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오가다는 월일 열흘에 월일에 2009년 7월, 무고동에 2평짜리 가게를 오픈한 이래로 현재까지 전국에 35호점을 오픈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주력 음식점도 많이 있지만 따로는 차를 소홀해 하시며 입소를 나누는 첫걸음는 다르듯, 한잔차를 마시기만 한 식구들과 산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차에는 이상한 분위기를 나는 것에 이기게에 목적이다.

이곳의 장점을 한가지만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곳에서는 한잔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먹자음라운 없이 매서 차를 한잔했다고 생각하는 건강차를 마음껏도 맛보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양한 재료를 넣은 한방차부터 이차에 식물을 또한 과일에 어우한 보이음료, 생과일주스, 슬러시까지 솔솔도 다양하니 각자에 기호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다이어트에 좋은 레시피(음식)나, 여성건강에 좋은 비지 방에오이주스, 콜라겐에에 좋은 호지사상차기산약차 등 이름도 예쁘고 맛도 좋은 식품이 많이 있다. 또한 젊은 층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한층 시원한 감칠과 독특한 향기로운 한잔의 차를 즐기기에 충분하다.

INFORMATION

문의 : 053-253-0456
위치 : 대구 중구 동성로2가 68-25 1층 (2 · 28 기념중앙 옆 현철약 앞 맞은편 스무디킹 앞)
시간 : 매일 10:00 ~ 23:00
홈페이지 : http://www.ogada.co.kr/

04 CAFE

고양이와 커피 한잔 하실래요

「고양이가 열리는 나무」

혼자를 가는 커피전문점이 많아지면 애니로게 고양이 그려를 찾아하 보는 것은 어떠할까? 지중인의 고양이를 좋아하고 고민할 수 있는이라 생각은 음식이에 즐길 수 있어 생각보다 하려를 만들지도, 등심로 등산길하에 차지 한번 "고양이가 열리는 나무" 라에에 들어서자 각기 다른 개성을 갖춘 고양이들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주인는 손하게 인사한 인기리에는 고양이가 다치지 않도록 고객은 사진촬영 등에 주의사항 및 고양이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한잔에는 차가에 보이던 고양이로도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 까지 다른를 놀고를 무리까지 함께 놀며 정을 쌓하기도 하며 에스에 점근하게 다가온다. 음동문에 가도 좋아보기 힘든 사진이들 촬영에서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것 역시 공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주로 다식생활이 많이 찾는 애고에서는 고양이를 소재로 한 메뉴와 관련한 지주상품이 없다. 나에서 벤로 "고양이를 스포하니" 에 등장하는 차로도 고양이 본 색주로 인지도가 더 높아졌고 이러 생각이를 사이에서는 "고" 라는 이정으로 통할 만큼 명기 장소가 되었다.

커피를 마시러 오게 되는 고이지만, 과일 주스, 생과도, 아르주에 주술주류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도 있다. 먼기 음료는 등이 특색에서 다른 일품한 블루베리 라떼(4500원), 생과일을 갈아넣은 복숭아(4000원), 크랜베리 하이볼 주스(4000원) 등에 있다. 특히 날이 더워지면서는 블랙커피아이스(4000원)가 인기가 많고 있다고 한다.

INFORMATION

문의 : 011-9499-2423
위치 : 대구중구 봉산동 19-2 (동산가리 골목 안쪽)
시간 : 매일 12:00~22:00
홈페이지 : club.cyworld.com/catree

학년소식

1학년

아쉬워고 어색하게 시작했던 공학무대 개선하던 이제 2011학년 신입생은 93일 지났습니다. 여전과의 시이에서도 100일은 자내어 하기 전도가 나진다고 표현하지요? 100일이면 휘든 장정보도 보일만한 아름다운 시기일에도 불구하고 2011학년은 아직 세 100일도 되지 않아 아이 신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였겠지요.

2011학년의 분위기는 아아 서공 교학 주문할 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전한 등으로 근거로 학생들에게 "이 책을 다 시아 외" 라는 식으로 교재를 강매한 1학년 송주 덕분에 많은 학생들의 교재를 구매하였고, 이에 본의 아니게 학구적인 분위기로 첫 3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자 선배들의 반응은 "이번 1학년은 왜 이렇게 빠릴 많이 시오기" 라는 것이었고, "책서 즘 얼심히 한다기" 라는 여론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들은 지금 다들 사물함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의 아니게" 심성하게 공부 얼심히 할 것 같은 학번" 으로 여론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11학번 동기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심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집습니다. 바로 인예학적인 측면에서 그렇는데, 실은 많은 11학번 학우들은 선배님들의 예측과는 달리 업복 전 사귀던 커플과 헤어진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단 한명하여 없다는 전기록을 5월 현재까지 아직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심심한 상황에서 터졌던, 4월 첫 주 오고지를 한후로 한 커플 탄생은 그야말로 어는 시간 대학 주제의 5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무척이나 신선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언제 있었나는 듯 신선도를 잃고 다들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선도를 잃고 학교 생활에 속속 지쳐가고 있지만, 이 와중에도 몇 가지 소소한 올력스을 자분에 11학번은 아직 힘을 내고 있습니다. 원주 기회가 당분내도 이들의 올동을 11학번에은 국민되지 않도록, 여러 교수님들, 선배님들께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혹 아직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마십시오. 11학번 화이팅!

2학년

벌써 학기가 반이 넘어 기말을 향해 달리기고 있습니다. 어휴 "-" 이제 곧 방학이 오겠죠? 1학년 때처는 다르게 설심이 많아져서 바른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일과 보즈 실습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도 다반사구요. 실습실에서는 팬팀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고, 모군은 외로움을 달래지 못해 팬팀과 뽀뽀~ 를 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또 실험 하나 없는 날에는 학교 앞에 술집에 모여 술을 먹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될 만한 소식 하나. 우리의 동이님, 실습의 지존 이상은 학우가 전지제에서 럭스키팀대회 2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답니다. 1등은 모 대학의 치기공 전공 학생이었고 하나 사실상에 1등이나 다름이 없는 듯. 오호홈, 또 무슨 소식이 있나요? 아아 나사공 축제기 다가오면서 2학년 학생회 분들이 너무 수고기 많아요. 시험에 실습에 학교행사 준비까지 정말로로 바쁘나는 우리 학우분들 파이팅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구요. ^^

3학년

벌써 입학한지 3년을 접어들어 기존에 학교생활하는 조금 다른 방식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1, 2학년에 1주일에 한번 씩 병원 observation수업을 했었지만, 지금 병원의 8개 과을 2주씩 도는 원내 수업은 그 때하는 많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진료도 많이 하고 실수도 잦지만, 그래도 각 과의 특색있는 수업과 실습을 통해 배우는 것들에 이제까지 머리 속에 흩어져 있던 내용이 정리되는 것 같이 정말 신이 납니다. 물론, 조금씩 일이기면서 체력기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공부만이 살길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3학년의 자면서 동기들의 신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학우도 있고, 결혼한 동기도 2명이나 저었습니다. 이곳 원내 생활을 하면서 연애도, 결혼도 적지 않다는 동기들을 보면 2더의 심정을 지난 박지성 저리(?)입니다. ^^

5월 1일부터 5일까지 3학 5일로 김교한 교수님과 김진수 교수님을 모시고 졸업여행도 태국으로 다녀왔습니다. 항목의 돌아옹공 대학을 간학하고 나이지 시간은 피아에서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남아사아의 무다운 더위와 원내 생활을 통한 입하는 학습량이 의해 지절 먼도 없으나,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기 위해 주지을 불태웠던 동기들의 모습은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졸업여행도 다녀오고, 일으로 3개의 과을 자나면 원내생활이 끝납니다. 개인의 실수를 덮어주고 도와주는 조직들이 없이 혼자 병원생활을 해야 하는 앞으로의 시간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걱정을 덕로 하고, 졸업여행으로 들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은 원내생활을 모두 잘 마치면 좋겠습니다.

동료나 선배들보다 더 잘하다고 나무 대쓰지 않는 대신,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동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학년

마감을 앞두고 숨기쁘게 달리고나니 공허한 2학기 케이스북이 다시 저희를 맞이하였습니다. 바빠졌던 선생님들의 사진들은 어디기고 이것뿐인가하는 생각도 들지만,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학기라고 생각하니 후회없이 최선을 다 해보자라는 생각도 듭니다. 돌과 여름이 많이 지나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드든은 동기가 옆에 있어주니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힘이 되고 의지하다보니 4학년이라서도 C.C가 된생되기를. 우리학년의 이직학 C.C라고 생각하는 H.Y과 J..J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번학기에는 작년보다 케이스수가 많아진 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마비될 것 같습니다. 11월부의 국시준비를 위들히 하려면 이직 영심히 해야겠지요. 또 지난학기 무시히 넘어갈 수 있도록 고생한 대표단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ST 중에 오시서 지혹을 지도해주셨던 교수님들과 여러분 여근 속에서도 ST분지을 esfor해주시의 신경써주신 병동신생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5월입니다. 곧 무더운 대구의 여름이 지혹을 괴롭히겠지만, 건강에 신경써서 잘 버티서 원 본의 국시준비할 그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가실의 전투기는 울리고 있습니다. 4학년 동기을 화이팅!

만평

그림 김신명